주간 KTTU
Weekly KTTU

<제15호>
2003년 11월 10일
당당한 노동조합 건설!!
www.kttu.or.kr

발행·편집: KT노동조합 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전화: 031-727-4820~4855 팩스: 02-750-5404

"전국노동자대회, 10만이 모였다"

우리조합간부 700여명도 집결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의지 과시

▲ 전국노동자대회가 10만 노동자가 운집한 가운데 9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다.

9일(일) 서울시청앞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10만의 노동자가 ▲손배가압류 철폐 ▲노동탄압 분쇄 ▲비정규직 철폐의 한 목소리를 냈다.

14:30분경 각 연맹들이 서울역, 광화문, 종묘, 신촌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사전집회를 열고 대시민 홍보활동을 펼친후 집결하자 서울시청은 발 디딜 틈 없는 인파로 가득찼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참여정권 개혁정권을 자임하던 노무현 정권이 채 1년도 안돼 국민을 우롱하는 사기정권·기만정권임을 드러냈다"며 현정권을 규탄했다. 또한 "노무현 정권이 노동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2일 총파업은 물론 그 이후에도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 분명히 했다.

노동탄압규탄 범국민대책위 정광훈 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2003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노동자와 농민을 죽이고 있다"며 "이제 열사들의 죽음을 수확할 게 아니라 반란의 변혁을 수확하자"고 역설했다.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12일까지 손배가압류 철회, 비정규직 차별철폐, 부당노동행위 척결 등 민주노총의 요구를 수용하고, 사용자 대항권강화, 국민연금개악, 퇴직금제도 개악, 개방정책, 이라크파병 등 반개혁적 작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회를 마치고 거리행진을 하려했으나 경찰이 처음부터 경찰버스 20대를 동원 도로를 완전봉쇄하고 강경진압으로 일관했다. 이에 2시간여 동안 경찰과 대치하는 사이 부상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저녁 7시 30분경 명동성당에 집결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오후 3시 열린 ‘2003년 노동자대회’에 KT노동조합도 전국 800여 조합간부들이 집결 10만대오에 합류해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 의지를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11월9일 열린 노동자대회에서 손배.가압류 등 상상을 초월한 노동탄압으로 억눌렸던 분노를 터뜨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토끼몰이식 진압과 무차별 폭행으로 111명의 노동자가 경찰에 연행됐으며, 부상자 규모도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음성적 상품판매 강요, 용서치 않겠다!!

강제사례 적발 시 책임묻을 것

노동조합은 회사의 경영 환경 즉, 매출은 고용안정과 필연적으로 연계될 수 밖에 없는 현실속에서 2003년 4월 21일 상품판매 노사합의의 후속조치로 2003년 6월 16일 비영업부서의 전략적 상품판매 자율적 목표를 노사합의했으나, 회사는 비영업부서의 자율 상품판매가 대내외 부정적 여론 등 불공정 거래의 문제점이 발생돼 2003년 7월 7일자로 모든 비영업부서 상품판매 활동을 중단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한 노사합의서(2003.4.21자, 6.16자)는 준수하지만 전략적 상품판매 목표 부여는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자율판매목표 관리에 있어 기관별 과당경쟁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비영업부서의 판매활동을 전면 중단한다는 최고 경영진의 강력한 표현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기관별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음성적으로 KT-PCS 등 상품판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심지어 개인별 강제할당을 하는 구태의연한 작태가 또다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정보가 노동조합에 접수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과 영업본부는 이러한 상품판매 강요 사례가 결코 경영여건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며, 내년에 시행될 번호이동성 제도와 관련해 총력 매진할 환경속에서 오히려 종사원들의 사기저하만 양산되는 우려를 공감하였고, **강제적 사례가 확인되면 단호히 업무지침에 의한 책임을 부여키로 결정**했다.(강요사실 확인 시 해당 기관책임자 및 사원에 대해 감사실 통보 "직무명령 불이행"으로 징계 및 경영평가 시 페널티 부여)

조합원은 음성적인 상품판매 강요사례가 발생시 지부장 및 중앙본부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지방본부 및 지부장은 음성적인 상품판매 강요사례는 회사의 경영방침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임을 재인식하시고 강력한 중단 요구와 함께 그 사례를 중앙본부에 보고하기 바란다.

노동조합은 음성적인 상품판매 강요사례가 접수시 일벌백계 차원의 조치를 반드시 취할 것이다.

◆ **접수처 : 노동조합 정책1국**

(031-727-4832)

총파업 결의대회

"열사의 뜻 이어받아 노동탄압분쇄하자"

6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원등 1만여명이 참여했다. 대회는 "열사의 뜻 이어받아 노동탄압 분쇄하자"라는 힘찬 구호로 시작됐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20일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오늘 우리는 총파업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이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현실을 끝내기 위해 모였다. 또, 노무현 정부가 현재 노동 현실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젠 오직 우리의 투쟁으로 현실을 타개해 나가자"고 말했다. 그는 12일 이후에도 손배가압류 철폐, 노동탄압 중단, 파병 철회등 민주노총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투쟁을 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 위원장의 발언에 참가자들은 더이상 죽이지 말고 현안 문제를 해결하라고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정광훈 민중연대 의장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닌 불량정부"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승원 공공연맹 위원장은 "우리 열사들의 죽음은 이 땅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힘있게 투쟁해 희망을 만들자"고 외쳤다.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노동탄압 분쇄하자고 결의했다.

우리 노동조합도 중앙상집과 수도권 및 본사지방본부 조합간부 50여명이 참석 자본과 노무현 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했다.

소식지 '당당한 노동조합' 지령200호 기념 이벤트

[이벤트 1] 아래 3가지 주제에 대한 의견을 A4 한장 내외분량으로 보내주세요.

- 향후 조합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노동조합 건설과 조합간부(지부장)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 현장의 조합원들이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안정된 직장건설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 8대 집행부 출범후 10개월 동안의 평가와 향후 8대 집행부의 과제에 대해

- **최우수 5명 : 10만원권 상품권**
- **우수 10명 : 5만원권 상품권**
- **기 간 : 11월 6일 ~ 12일까지**
- **이메일 : sunet01@hanmir.com**
- **팩 스 : 02-750-5404**

[이벤트 2] 격려메시지나 따끔한 질책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3] 조합 홈페이지(www.kttu.or.kr)에서 소식지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방본부소식

지부소식